

이 보도자료는 2024. 1. 22.(월)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직무대리 유진승
전화 051-606-4164

보도자료
2024. 1. 22.(월)
주책임자 : 강력범죄수사부장
전화번호 : 051-606-4320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수익 550억원 자금세탁 일당 기소
- 강남빌딩, 40억대 슈퍼카, 미술품 등 범죄수익 535억원 추정보전·압수, 주범 4명 구속기소, 00수협조합장 등 5명 불구속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000조직이 '18. 7.~'22. 8. 범죄수익 550억원을 자금세탁한 사실을 밝혀내, 총 9명을 기소(구속 4명, 불구속 5명)하고, 추정보전·압수 등으로 535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수사결과, 해외 도피한 000조직 총책 甲과 자금세탁 총책 A의 주도로
① 슈퍼카 수입판매, 아파트 재개발 등 투자, ② 강남 신사동 부지, 해운대 고급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 ③ 초고가 슈퍼카(40억원 상당의 부가티), 유명 작가 미술품(백남준, 피카소작) 명품시계(6억원 상당의 리차드밀) 구입 등의 방법으로 합계 550억원을 세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 ① 자금세탁 총책 A, 자금관리·인출책 2명, 자금세탁에 적극가담한 甲의 부친 등 총 4명을 구속기소, ② 現 ◇◇수협 조합장을 포함하여 본건 자금세탁에 관여한 가족·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 조합장 당선 전 범행으로 아들도 구속된 점, 대부분 범죄수익 회수된 점 등 고려 불구속

● 부산지검은 철저한 은닉재산의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 등 차명 보유한 부동산, 서울 은신처에 숨겨둔 슈퍼카 등을 확인하고,

- 합계 445억원의 부동산, 20억원의 금융자산, 합계 50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3대, 고가 미술품 등을 추정보전·압수하여,

- 피고인들이 자금세탁한 범죄수익 550억원의 97% 이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계 535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부산지검은 해외 도피 중인 갑의 소재와 추가 범죄수익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금세탁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철저한 은닉재산의 추적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피고인 및 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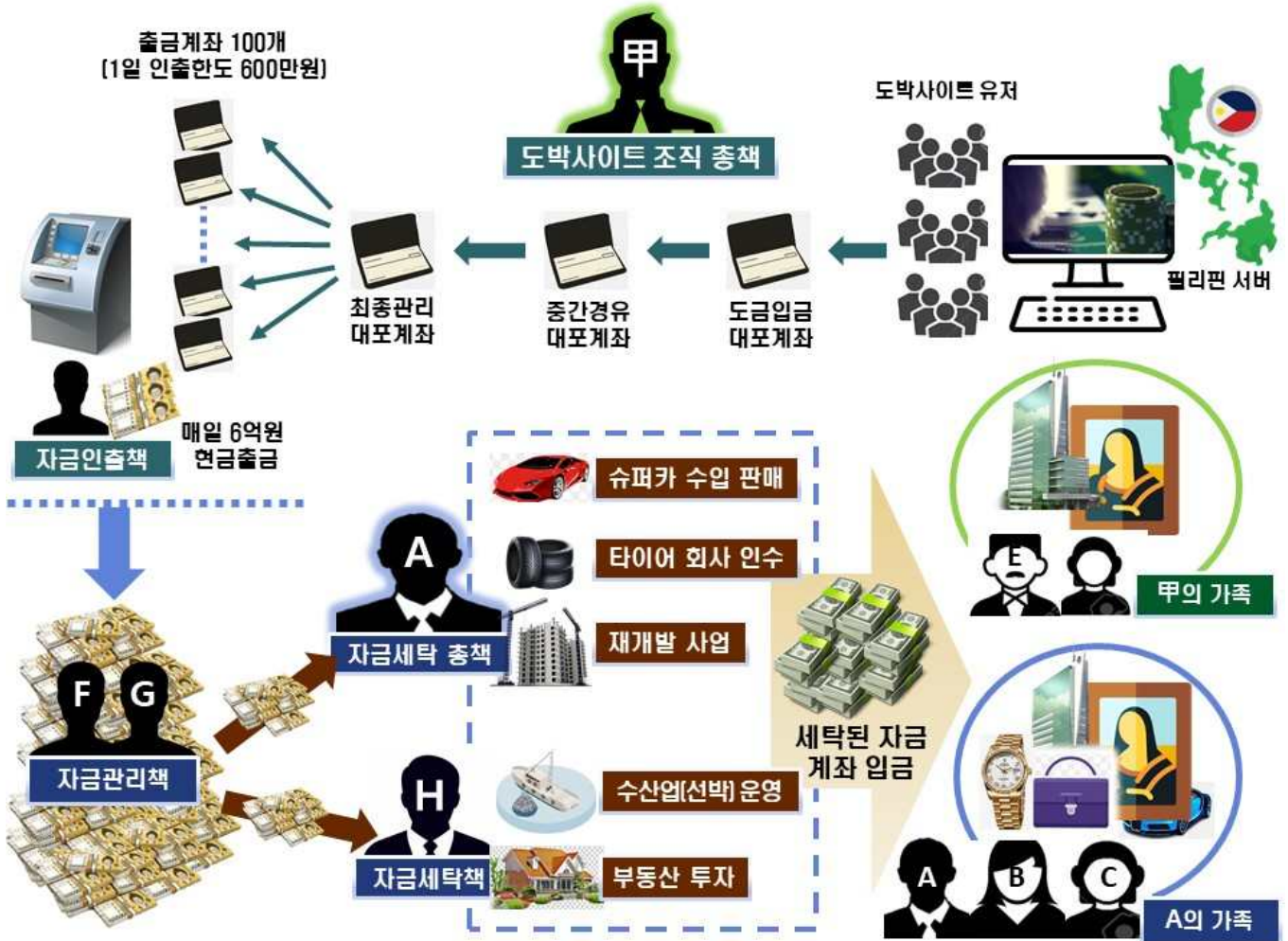
| 순번 | 피의자 | 지위, 역할 | 비고 |
|----|------------|--|---------------------|
| 1 | 甲 (남, 35세) | OOO조직(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19. 5. 해외도피, 국적변경) | • 기소중지 (인터폴 적색수배) |
| 2 | A (남, 42세) | 자금세탁 총책 | • ’23. 11. 24. 구속기소 |
| 3 | B (여, 31세) | A의 배우자 | • ’24. 1. 11. 불구속기소 |
| 4 | C (여, 60세) | A의 장모 | • ’24. 1. 11. 불구속기소 |
| 5 | D (남, 35세) | A의 부하직원 | • ’24. 1. 11. 불구속기소 |
| 6 | E (남, 65세) | 甲의 부친 | • ’23. 11. 24. 구속기소 |
| 7 | F (남, 41세) | OOO조직의 국내 자금관리책 | • ’23. 9. 19. 구속기소 |
| 8 | G (남, 32세) | OOO조직의 자금인출·자금세탁책 | • ’23. 8. 3. 구속기소 |
| 9 | H (남, 60세) | G의 부친(OO수협조합장) 자금세탁책 | • ’24. 1. 11. 불구속기소 |
| 10 | I (남, 46세) | 타이어 회사 대표 | • ’24. 1. 11. 불구속기소 |

II 공소사실 요지

[도박사이트 운영 개요]

- 甲은 ’17. 2.경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OOO조직을 결성
 - 국내 조직원 등과 함께 16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도박개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19. 5. 해외 도피한 후,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
- 자금관리책 F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의 범죄수익을 매일 6억원씩 현금으로 인출 (계좌별 1일 ATM 현금인출 한도 600만원×100개의 대포통장)
- 甲 이외에 국내 조직원 중 일부는 도박개장 혐의로만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출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甲을 위해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에 관여

[범행 개요도]



1. 슈퍼카 수입판매, 타이어 회사 인수, 재개발 사업투자 등으로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甲, A의 공동범행) '18. 10.~'19. 2. 甲의 범죄수익금 83억원으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24대 수입 후 판매하여 자금세탁
- (甲, A, I의 공동범행) '20. 2.~'20. 9. 甲과 A는 甲의 범죄수익금 140억원으로 I의 타이어 회사 인수 및 타이어 구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 I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A로부터 현금 140억원 수수
- (甲, A의 공동범행) '21. 2.~'22. 1. I가 위 140억 중 100억원으로 양수한 부동산법인(경기 00시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 지분을 A가 적법하게 인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법인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230억원(범죄수익 유래재산) 중 110억원을 취득(수표 또는 A 명의 계좌로 수령)
- (甲, E의 공동범행) '21. 7.~'22. 5. 위 부동산법인의 매각대금 230억원 중 69억원 상당 수수(E 명의 계좌로 수령)

2. 선박구입 등 어업사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甲, F의 공동범행) '19. 2.~'20. 1.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도박사이트 대포계좌에서 甲의 범죄수익금 **140억원**을 현금 인출한 후 G에게 전달
- (甲, G, H의 공동범행) '19. 2.~'20. 3. G는 위와 같이 F 부하들로부터 받은 현금 **140억원**을 H에게 전달하고, 어업사업 운영하던 H는 가족·지인 등 명의로 어선 3척(합계 267톤) 및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금세탁
- (A의 범행) '20. 10.~'20. 11. H로부터 위 범죄수익금 중 **11억원** 상당을 회수하여 甲의 도박사이트 대포계좌로 반환
 - '20. 9.~'22. 2. 위 선박·부동산의 매각대금(범죄수익유래재산) 중 **합계 52억원** 상당을 甲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

3. 다수 고급 아파트 매입 등으로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 (A, B의 공동범행) '19. 1. 甲의 범죄수익금으로 해운대 아파트 구입(매입가 9억원), '19. 12. 매각 후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수 구입(매입가 18억원 상당), '21. 11. 매각 후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수 구입(매입가 27억원 상당)하여 자금세탁
- (甲, E의 공동범행) '21. 10.~'21. 12. 위와 같이 부동산 법인 매각대금 중 취득한 금원으로 해운대 아파트(매입가 17억원 상당, 甲의 배우자·자녀 거주 중)를 E 명의로 구입하여 자금세탁
- (甲, A, D, E의 공동범행) '21. 12. E가 위 해운대 아파트 구입하려 할 때, 소유 중인 다른 아파트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서 담보대출이 막히자, 아파트를 D 명의로 명의신탁

3-1. 명의수탁자를 해외로 도피 **【범인도피】**

- (A의 단독범행) '23. 9. 명의수탁한 D에게 도피자금으로 미화 10,000 \$를 주며 해외 도피를 지시하고, D가 그에 따라 출국

4. 자금세탁 총책의 가족 계좌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 (A, B, C의 공모) '18. 7.~'22. 8. 甲의 범죄수익 등(현금 **17억원** 상당 등)을 A의 배우자 B와 장모 C 명의 각 계좌로 입금 후 여러계좌로 수회

III

수사 경과

- '22. 12. 부산지검 수사착수
- ~'23. 6. 피의자들 주거지 및 사무실(서울·대구·부산) 등 압수수색 3회 계좌추적*, 기소전 추정보전 청구 및 인용

* 관련자 20명 명의 계좌,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72개, 연결계좌 등 합계 약 450개 계좌추적

- '23. 7. 19. 자금인출책 G 구속 (8. 3. 구속기소)
- '23. 9. 1. 자금관리책 F 구속 (9. 19. 구속기소)
- '23. 11. 6. 자금세탁 총책 A 구속 (11. 24. 구속기소)
- '23. 11. 10. OOO조직 총책 甲의 부친 E 구속 (11. 24. 구속기소)
- '23. 12. 1. 총책 甲에 대하여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 ~'24. 1. A·E·F·G의 추가 범행,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 A가 페이퍼컴퍼니 이용하여 차명 보유한 강남 부동산 등 은닉자산 추적 및 확보*

* 추정보전 집행완료 내지 압수로 확보한 자산내역 : 합계 535억원 상당 이상

- A 보유 부동산 합계 319억원, 차량 합계 50억원 상당(부가티 1대, 페라리 2대), 타이어 재고자산 20억원 상당, 고가미술품(피카소, 백남준, 앤디워홀, 로이 리히텐 슈타인, 무라카미 다카시, 이우환 作 등), 명품시계·가방 등
- B 보유 부동산 26억원, C 보유 부동산 합계 75억원
- E 보유 부동산(25억원) 및 금융자산(20억원)

- '24. 1. 22. A·E 각 추가 불구속기소 (G는 '23. 12. 19. 추가 불구속기소)
B·C·D·H·I 각 불구속기소

※ 甲에 대하여는 필리핀 현지 소재 등 계속 추적 수사 예정

IV

수사결과 및 의의

① 대규모·조직적 자금세탁 범죄 적발

-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 550억원 상당 세탁) 검찰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000조직의 범죄수익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에서 이뤄진 자금세탁 범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
 - 장기간 대량의 계좌추적과 범죄수익 은닉장소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현재까지 5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자금세탁된 사실 확인
- (조직적 자금세탁) 해외 도피 중인 000조직 총책 甲의 지시에 따라, 국내 자금관리책 등은 매일 현금 6억원을 인출하여 정기적으로 자금세탁책들에게 전달
 - 이들은 금융당국의 적발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10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ATM 기기에서 1일 현금인출 한도 내에서 출금
 - 자금세탁총책 A가 일시 보유했던 현금만 500억원에 달한 사실 확인



[자금세탁총책 A가 자금인출·관리책으로부터 받은 후 촬영한 현금 사진]

② 자금세탁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까지 이용

- (자금세탁책의 본업을 이용) 000 조직 총책 甲과 자금세탁 총책 A는 자금세탁책들이 종사하던 본업(외제차 수입업, 수산업 등)을 이용
 - 현금 출금한 범죄수익으로 투자하고, 수익 및 매각대금 등을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출처의 외관을 형성
-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도 자금세탁) 자금세탁책의 본업 이외에도 유망 업종 내지 회사를 인수·투자하면서 자금세탁
 - A는 범죄수익 100억원이 투자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230억원에 재매각하여 추가 수익을 얻기도 하였음

※ 위 230억원 전부가 “범죄수익 유래재산”으로 이를 은닉·취득하는 행위 역시 처벌

③ 40억원 상당의 슈퍼카 운전, 강남 빌딩 신축 등 성공한 사업가 행세

- (범죄수익으로 부동산 투자) A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기도 하고, 강남 신사동 부지를 164억원에 매입하여 빌딩을 신축하는 등 상당 부분의 범죄수익을 부동산에 투자
- (초고가 스포츠카 등 구입) A는 범죄수익 등으로 구입한 ‘부가티 시론 (40억원 상당)’, 하이엔드 명품시계 ‘리차드밀(3~6억원 상당)’ 등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

※ SNS 등 인터넷에 A의 부가티 시론 운행에 대하여, ‘부산 부가티’라는 제목 아래 여러 목격담이 올라올 정도로 희귀 차량



[부가티 시론]



[리차드밀]

④ 現 OO수협조합장의 140억원 자금세탁 가담 사실 적발

- (수협직원 신분으로, 자금세탁 가담) 자금인출책 G의 부친 H가 OO수협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전, G로부터 甲의 범죄수익금 140억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자금세탁한 사실을 적발
 - (어업회사 등 이용) H는 어업에 종사 중인 점을 이용하여 甲의 범죄수익으로 대형 어선 3척(합계 267톤)을 구입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건물 및 토지를 구매하여 자금세탁
 - 甲과 H는 甲의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위 어선·부동산을 처분하고 140억원을 甲의 자녀에게 돌려주되, 그간 투자수익은 H가 모두 취득하기로 약정
- ※ A에게 위 140억원 대부분 회수당한 점, 아들 G가 구속된 점,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고려, H 불구속기소

⑤ 주범의 가족, 직원 등이 자금세탁에 가담한 사실 규명하여 엄단

- (처가에 현금 은닉) 자금세탁총책 A는 대구 소재 처가에 금고를 설치하여 현금 18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배우자 B와 장모 C는 A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위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이체하여 자금세탁
- (아파트 담보대출 활용한 자금세탁) A와 B는 최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매입자금 출처를 증빙한 후 보관 중인 범죄수익 등으로 대출변제하여 자금세탁
 - E는 1가구 2주택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기존 아파트를 A의 부하직원 D 명의로 등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운대 고급아파트를 구입
- (범인도피 등 수사방해) '23. 7.~9. 국내 자금인출·관리책인 F와 G가 순차 구속되자, A는 '23. 9. 자신의 자금세탁 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D를 해외로 출국시켜 수사방해
- (가담자 전원 사법처리하여 엄단) 이처럼 자금세탁 가담 사실이 적발된 OOO조직 총책 甲의 부친 E를 구속기소, 자금세탁총책 A의 배우자 B와 장모 C, 도피하였다가 귀국한 부하직원 D를 각각 불구속기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 법령에 따른 의무나 채무의 이행 명목이라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지급받은 경우도 처벌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 운용을 모두 규제하고 있음

⑥ 차명재산까지 추징보전하여 범죄수익 완전 박탈 - 535억원 확보

- (은닉재산 추적) 부산지검은 범죄수익 환수 중점을 두고, ① 총 450개 계좌추적, ② 전국의 000조직 관련 도박사건 기록 분석, ③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범죄수익 은닉장소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농막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규모 직접수사로 은닉재산을 추적
- (범죄수익의 97% 책임재산 확보) 그 결과, 부산지검은 피고인들이 자금세탁한 550억원의 범죄수익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535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
 - A가 차명으로 보유한 강남 신사동 부지 및 신축 빌딩을 포함하여 해운대 고급아파트 등 부동산 **합계 445억원**과 금융자산 **20억원**을 추징보전
 - 자금세탁 수사가 본격화되자 A가 차명등록 후 지인에게 맡긴 부가티 1대, 페라리 2대의 서울 소재를 파악, **합계 50억원 상당의 고급 스포츠카 3대를 직접 압수**
 - ① 서울·부산·대구의 타이어 회사 3곳에 보관되어 있던 타이어 재고 자산 **20억원 상당**, ② A의 주거지 등에 보관 중이던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미술품**(백남준, 피카소, 앤디워홀, 리히텐슈타인, 무라카미 다카시, 이우환, 하비에르 카예하 등), ③ **고급시계**(파텍필립, 리차드밀 등)와 **명품가방**(에르메스, 샤넬 등) 등 유체동산까지 추징보전

V

향후 계획

-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운용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임 ■■■

붙임 1 : 자금세탁총책 A가 자금인출·관리책으로부터 받은 후 촬영한 현금 사진



붙임 2 : 압수한 부가티, 페라리 차량



붙임 3 : 추정보전 및 압수한 미술품



[피카소 作]



[피카소 作]



[백남준 作]



[이우환 作]



[로이 리히텐슈타인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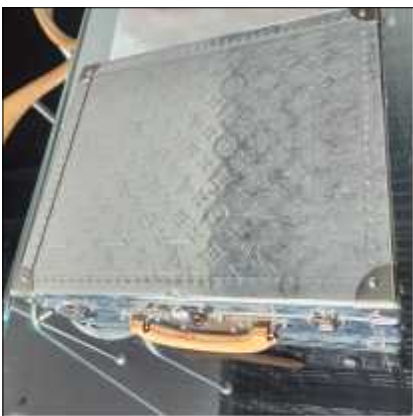
[하비에르 카예하 作]

붙임 4 : 추정보전한 고급시계



[리차드밀 6점, 파텍필립 1점, 까르띠에 1점, 오테마피게 1점 등 총 9점]

붙임 5 : 추정보전한 명품가방



[에르메스 핸드백 4점, 샤넬 4점, 디올 3점, 루이비통 4점 등 총 13점]